2020 새 설계 이동진 진도군수

"진도 비전 2030 계획 수립…지역 밝은 미래 이끌겠다"

"진도 비전 2030 계획을 수립해 진도의 장기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새해를 맞아 "진도군이 전남 서남부권 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에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올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민들의 실질 소득과 직결되는 관광·농수산 정책을 펼쳐 잘사는 진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군수는 군정 목표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수산업 분야 지원, 군민 복지증진,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 지역개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군수는 "진도 비전 2030 계획에 따라 진도 국제항 건설,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조도대교 건설), 해안 일주도로의 국도 77호선 승격, 가사대교 건설, 진도-영암간 고속도로 건설 등 진도의 장기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분야에서 국립한국화미술관 건립, 민속문화예술대학 설립, 상·장례문화 유네스코 등재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인구유입을 위한 특별한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특별 대책을 위해 진

국제항 건설 등 장기 프로젝트 추진

서남부권 관광 중심도시 도약 박차

인구 유입 위해 귀농·귀어 적극 지원

도군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100세대를 집단으로 유치하는 등 귀농·귀어·귀촌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군수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100세대와 미국 LA교포 중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200세대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진도읍 LPG 배관망 사업 등 73건의 주요 개발사업 이외에 신규로 지역개발, 항만, 하천, 관광시설 등 맞춤형 지역개발사업을 더욱더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더 늘릴 방침이다.

농업 분야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자부담 경감, 물류비 지원 등에 나선다.

수산분야는 전복 먹이 대체 품종 종자공급, 잡는 어업 활성화, 해삼 양식 단지 조성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호텔리조트인 쏠비치 진도가 최근 문을 연 이후 하루 평균 2000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 관광지와 외식 업소 등 관광업계가 상당한 호경기를 맞고 있는 만큼 관광·문화·예술 진흥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

이 군수는 "쏠비치 진도 개관으로 진도 관광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지역 연계 관광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전시컨벤션(MICE) 산업 유치 활동과 민속주(홍주) 테마공원, 진도 루지 테마파크 등을 민자 유치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도 대표 맛집 개발과 함께 진도문화예술제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진도역사관 건립을 위해 문화예술인 등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복지를 위해 1000원 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마을에 CCTV를 설치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2021년 진도 소방서 신설 노력, 치매안심센터 건립 사업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소통과 참여 확대 차원에서 주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이동군청, 찾아가는 군민 소통 현장 간담회 등도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군민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해 그 결과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으로 진도의 밝은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2020년 주요 사업은

▲전남 서남부권 관광 중심도시로 도약
▲귀농·귀어·귀촌 인구유입 위한 특별 대책 시행
▲항만, 하천, 관광시설 등 맞춤형 지역개발사업 박차
▲잡는 어업 활성화, 해삼 양식 단지 조성
▲진도 관광의 새 시대 지역 연계 관광 상품과 콘텐츠 개발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진도소방서 신설 추진

진도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민속예술대학 설립 추진

추진위 구성 정부 건의 등 활발

전통문화예술 중심지 자리매김

지난해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 남도 명인·명창 국악의 향연' 아리랑 공연 .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된 진도군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과 한국민속예술대학 건립을 추진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의신면 일원에 450억원을 투입해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미술관 진도관은 운림산방에서 시작된 남종화와 서예, 창(唱) 등으로 이름난 예술의 본향이란 점을 강조한 프로젝트이다.

진도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일가 직계 5대 화맥의 산실로도 유명한 운림산방과 소치기념관을 비롯 남진·소전미술관 등 현재 9개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진도군은 전국 최대 국전 특선작가 150명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5년동안 국전 특선 작가 작품 기증만도 1500점에 이르러 전시공간이 부족할 정도이다.

현대미술관 진도관은 단순한 전시가 아닌 대한민국 한국화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가 핵심이다. 추진위원회를 구성, 정부 건의를 비롯 서명운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또 서·화·악 등 전문교육과 연구를 통합 전통문화 전승보존을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립 한국민속예술대학도 건립할 예정이다.

한국민속예술대학은 진도국악고등학교와 국립남도국악원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화학과, 서예예술학과 등 5개 학과를 기본으로 개설된다.

이와 함께 군은 국립남도국악원 인근에 1만6551㎡ 규모의 예술인촌 조성을 위해 2018년 7월 민간에 택지 매각을 완료한 상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은 지난 2013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문화·예술자원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됐다"면서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과 국립한국민속예술대학 설립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7개 읍·면 3월 20일까지

진도군이 오는 3월 20일까지 지역 7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전국에서 동시에 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군은 읍·면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전 가구를 방문한 후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을 추진한다.

또 기존에 거주 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 재등록을 추진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함께 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2분의 1(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아리랑 체조교실 75개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

진도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리랑 체조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사진〉

아리랑 체조교실은 지난해 55개 경로당에서 올해부터 75개 경로당으로 확대됐으며, 매주 2회 1시간씩 1년간 진행된다.

아리랑 체조교실은 노년기 일상생활 건강 기능 유지를 위한 유연성, 평형성, 근력운동 등 노인들이 따라 하기 쉬운 동작 위주로 운영된다.

또 노년기 영양관리, 금연, 절주, 구강관리 등 통합적인 건강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아리랑 체조교실은 노인들의 신체 기능 변화에 맞춰 퇴행성 질환 예방과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노년층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아리랑 체조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